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운영

고창군이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고질적인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 연장에 따라 고창군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보유한 전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6년 농산물

가공 분야 시범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2026년 농산물가공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4억 3000만원 규모로 농산물 가공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총 5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9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크게 농산물 가공과 발효식품 가공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소득원 발굴 시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시설 구축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한다.

또한, 장류·전통주·식초 등 발효식품 업체를 대상으로는 △발효식품 제조시설 개선지원 △발효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장 설립 입지 우수 지역

전국 6850개 기업대상 설문... 공장 설립 '입지' 분야서 도내 유일 전국 톱 10 선정

전북 고창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분야 우수지역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체감도)를 바탕으로 창업·입지·행정 3개 분야의 우수지역 톱10을 선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입지 분야에선 규제 완화와 부지 활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 기초지자체 선호가 확인됐으며, 입지 톱10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포함됐다.

앞서 고창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9개 지표(투자유치 실적·노력도·우수사례 등)를 종합 평가하며, 고창군은 인구 7만 미만 시군 그룹 1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5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단지 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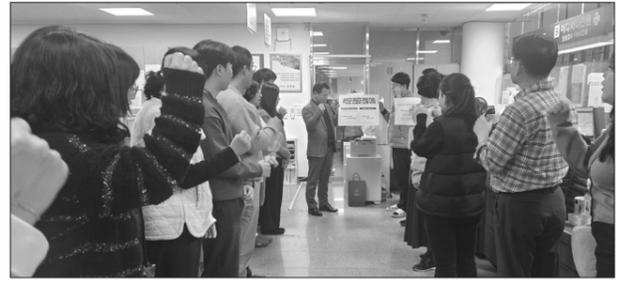
또한 고창군은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 기업 애로 해소를 79%를 기록했으며, 증축 신고·허가 지연 해소 등을 통해 연간 50억 원 규모 매출 증가 효과를 창출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굳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 16건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

업' 선정으로 국가 예산 4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확충해 왔다.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연계, 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묶은 윈스톱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성장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감동을'

부안군 민원과, 병오년 새해맞이 친절 교육 실시

부안군 민원과(과장허진상)에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민원과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새해 친절 모토인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감동을'과 이달의 친절 문구인 '문턱은 낮게, 친절은 높게!'로 친절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5년 12월)을 바탕으로 전문성(Confidence), 예절(Courtesy), 소통(Communication)을 의미

하는 민원 응대 3대 기본원칙(3C)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친절 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돼 민원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스스로를 낮추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마음을 갖춘다면 군민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군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청년 사업가들 지속적 성장 돕는다

유망청년기업 육성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28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사업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하고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시가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

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최종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각종 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입주 심사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미래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인증제가 청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읍시는 청년 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6억 투입해 벼 병해충 잡는다

육묘상자처리제,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0일부터

정읍시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개최한 '병해충 방제사업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벼 병해충 방제를 포함한 토마토 빨나방, 과수 화상병, 기후변화 대응 돌발 해충 등 4개 사업에 총 16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고, 농가에 보급할 약제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급증하는 벼멸구와 개씨무늬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를 활용한 초기 방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정된 약제를 농가에 신속히 공급해 사전 방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마토 빨나방, 사과·배 화상병, 복숭아·단감 등 9개 작목의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의 경우, 약제 구입 후 읍면동에 배부해 농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임플란트 비용 지원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미뤄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의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하며 의료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

정읍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지원 항목을 넓혀 1인당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동시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 검진 결과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절차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1차로 전신 건강·구강 상태를 검진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관내 협력 치과의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시술을 받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 모집

부안군은 19일부터 30일까지 부안의 대표 축제를 홍보할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부안 축제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와 하반기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일정, 현장 등을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